부산의 숨겨진 명소 — 범어사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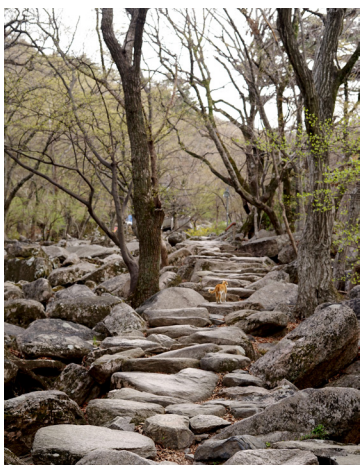
업무 중 회사 위치를 묻는 전화가 오면 부산경남지역본부 대다수의 직원은 "범어사역에 내리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할 것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7번 출구 인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 역시 출 · 퇴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범어사역을 주로 이용한다. 역이름이 '범어사역'인 이유는 부산 금정산에 위치한 사찰 이름을 땄기 때문이다. 부산경남지역본부 인근에 위치한 부산의 대표적인 사찰 중 하나인 '범어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한다.

부산의 관광명소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바다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해운대나 광안리를 말한다. 하지만 부산(釜山)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부산의 지명은 '산' 모양이 솥처럼 생긴 데서 유래했다. 그 이름만큼 산이 유명하다. 부산에는 금정산, 백양산, 장산 등 여러 산이 있는데, 그중 금정산 동쪽 기슭에 범어사가 있다.

범어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로 손꼽히는 곳이다. 원효대사, 만해 한용운 등 고승들이 수행했던 천년고찰이기도 하다. 금빛 물고기가 내려와 샘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깃든 금정산 기슭에 자리해 '불가의 물고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라 제30대 문무왕 18년(678)에 의상대사가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에 모두 소실되었다가 1613년(광해군 5년)에 다시 고쳐서 지었다고 한다.

범어사에는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가 있다. 일주문, 당간지주, 범어사 석등, 범어사 3층 석탑, 대웅전 등이 있으며 1907년께 범어사에 기증된 삼국유사 권4~5이 있다. 부산 범어사 소장본인 삼국유사는 현존하는 삼국유사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2020년 8월에는 '삼국유사 권 4~5'가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범어사역에서 내려 범어사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90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차로 이동하면 범어사역에서 5분~7분 정도 소요된다. 걷고 싶거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싶은 날이라면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을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힘들겠지만 청량한 숲길을 따라 가벼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길이 완만하고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40분 정도면 범어사에 도착한다.



범어사 입구에서 안쪽까지 이동하는 길엔 소나무(낙락장송) 10여 그루가 좌우로 심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노란 수선화가 피어 있어 가는 길을 즐겁게 한다. 사찰의 일주문(사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은 대개 2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지만 범어사 일주문은 기둥이 4개라고 한다.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을 차례로 지나면 대웅전이 눈에 들어온다. 대웅전 주변에는 석등과 3층 석탑(보물 제250호)이 놓여 있다. 대웅전을 지나 외각으로 나오면 고요했던 사찰의 분위기에서 벗어난다. 고즈넉히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에 이끌려 걷다보면 범어사 계곡이 보인다. 이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금정산의 최고봉인 고당봉(801.5m)으로 올라갈 수 있어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코스기도 하다.
흐르는 물보다 바위가 더 많아 돌바다(암괴류)라고 불린다고 한다. 이 바위들은 금정산 꼭대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져 차례로 쌓인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바위가 얼었다 녹으면서 깨졌다고 하니, 처음에 굴러 떨어진 바위는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의문이다. 또한 범어사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뽑힌 길로 기와, 대나무, 돌담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 화려하진 않지만 한국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범어사는 사계절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범어사 경내의 등나무에 꽃이 만발하는 4~5월부터 시작해 신록이 우거진 여름과 아름다운 겨울의 설경 등 사계절이 모두 좋지만 범어사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단풍이 곱게 드는 가을이다. 금정산에 둘러싸인 범어사는 단풍이 물들면 고즈넉한 사찰과 울긋불긋한 단풍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사찰 앞마당에 자리한 500년 넘은 은행나무가 노란빛으로 물든 모습 또한 장관이다.

범어사 입구에서부터 웰빙, 한식, 오리 보양식 등 음식점이 금샘로 먹거리타운이 조성되어 있으며 카페 또한 곳곳에 있어 자연 속에서 먹거리와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5월에 있을 석가탄신일에는 알록달록 무지개 빛 화려한 등불이 사찰 여기저기에 걸려져 있으니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할 때 부산 금정구에 위치하여 있는 범어사를 찾아가 산과 숲, 계곡 등 자연의 정취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